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3 No.38

FTA 격전지 페루, 한국의 판세는?

- 한 · 페루 FTA 3주년 평가와 전망 -

2014년 8월

박지은 연구원

장지영 연구조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약]

I. 최근 한·페루 교역 동향	1
II. 한·페루 FTA 3년의 성과	4
1.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4
2. FTA 혜택별 수출 성과	8
III. 對페루 수출 유망 품목	11
1. 개요	11
2. 對페루 분야별 수출 유망 품목	13
IV. 결론 및 시사점	18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박 지 은 연구원 (☎ 02-6000-5342, jieunpark@kita.net)

- 요약 -

중남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對페루 교역은 한·페루 FTA 발효('11.8월)를 계기로 지난 3년간 연평균 20.0% 증가하며 對중남미 및 對세계 교역을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

페루는 적극적인 FTA 추진정책으로 주요 수입국과 FTA를 모두 발효하고 있어 수입시장 내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페루 FTA 발효 이후 페루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을 0.04%p 확대하며 발효 전 10위에서 현재 7위로 상승하였다. 특히, 한일 경쟁관계에서 FTA 선점효과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이 2012년부터 일본을 추월하였으며 현재 0.9%p의 점유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FTA 발효 이후 화학제품, 전기기기, 수송기기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對페루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점유율이 가장 크게 확대(+2.5%p)된 화학제품은 2013년 7.7%까지 상승하였으며, 수송기기도 발효 전에 비해 1.1%p 확대된 13.7%를 기록하였다.

FTA 혜택별로 수출 성과를 비교하면, 지난 3년간 FTA 수혜품목은 對페루 수출 확대에 기여하며 非수혜품목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 FTA 수혜품목은 FTA 1년차, 2년차에 각각 51.1%, 11.0%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했으며, 3년차에도 非수혜품목 수출이 13.5% 급감한 반면 수혜품목 수출은 6.9%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페루 수입시장에서 FTA 수혜품목은 점유율을 1.2%p 확대하는 동안 非수혜품목은 오히려 0.9%p 감소를 보여 FTA가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에 기여했으며, 對페루 수출에 있어 FTA 수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편, 한·페루 FTA 수출 활용률은 91.8%로 현재 발효된 9개 협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FTA 활용을 통해 수혜품목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페루는 태평양동맹 국가로 자유로운 교역환경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전망되는바, 이에 한국에 대한 관세 혜택 및 최근 페루의 수입 수요 증가세를 반영하여 對페루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하였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FTA 관세혜택이 발생하는 승용차, 의약품 등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개인위생용품, 조명기구, 주방제품 등 소비재 관련 제품의 수요 확대가 중소기업의 對페루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는 적극적인 FTA 추진정책으로 현재까지 10대 수입국을 모두 포함하여 총 17건의 FTA를 발효하였고, 2014년 들어 수입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우리나라 對페루 수출은 3.1% 소폭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페루의 수입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어 최근 침체된 페루 수입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에서 FTA 관세 인하가 크지 않았으나 향후 추가 인하될 경우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발효시기가 늦어 관세철폐가 늦은 일본, EU 등의 경쟁국에 앞서 시장 확보를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I. 최근 한·페루 교역 동향

□ 우리나라의 對페루 교역은 한·페루 FTA 발효('11.8월)를 계기로 지난 3년간 ('11-'13년) 연평균 20.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對중남미 및 對세계 교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

○ (수출) 對페루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5.1%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對중남미 수출을 견인

* 對중남미 주요 교역대상국 연평균 수출 증가율('11-'13년) : 페루(15.1%), 바하마(11.1%), 브라질(7.7%), 아르헨티나(5.7%) 순

○ (수입) 반면, 수입은 연평균 24.0%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 지속, 이는 주로 자원 및 에너지 수입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

〈한국의 對페루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11.8월 한-페루 FTA 발효			2014 (1-6월)	'11-'13년 연평균 증가율		
				2011	2012	2013		페루	중남미	세계
수출	720 (54.5)	641 (-10.9)	944 (47.2)	1,368 (44.8)	1,473 (7.7)	1,440 (-2.2)	693 (-3.1)	15.1	0.1	6.3
수입	904 (-13.1)	919 (1.7)	1,039 (13.0)	1,950 (87.7)	1,639 (-15.9)	1,983 (21.0)	713 (-30.6)	24.0	7.8	6.6
교역	1,624 (7.8)	1,561 (-3.9)	1,983 (27.1)	3,318 (67.3)	3,112 (-6.2)	3,423 (10.0)	1,406 (-19.4)	20.0	2.5	6.4
수지	-184	-278	-94	-583	-167	-543	-20	-	-	-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 한편, 금년 상반기 對페루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 이는 중남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3.1%)와 수입의 급격한 하락(-30.6%)에 기인

○ (수입 감소 원인) 對페루 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은 연광(기타금속광물)과 은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이는 수입량의 감소이기 보다는 수입단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연광과 은의 우리나라 수입단가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4%, 41.9% 하락('14년 1~5월, Global Trade Atlas)

【참고 : 페루의 국가별 수입 동향】

- 페루의 對세계 수입은 2013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금년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8%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나타냄
 -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3% 하락하였으며, 미국, 중국, 멕시코를 제외한 10대 수입국에서 모두 -26 ~ -9%의 큰 감소세를 보임
- 한편, 페루의 對美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세 기록
 - 對美 수입 증가 요인은 옥수수(HS1005901100) 수입이며, 올해 수급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對美 옥수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
 - * 페루의 對美 옥수수 수입 추이(금액, 점유율) : '11년(1.8천만 달러, 3.02%), '12년(수입실적 없음) '13년(5.2천만 달러, 9.5%), '14.1~5월(2.0억 달러, 78.1%)
- 또한, 페루의 對中 수입은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휴대폰(HS8517)이 전년 동기 대비 53.7% 증가함에 힘입어 6.3% 증가
 - 특히 휴대전화 단말기(HS8517120000, 증가율 48.8%), 기지국 관련 제품(HS8517622000, 55.2%), 부분품(HS8517700000, 268.6%)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페루의 對세계 수입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
- 그러나 미국의 옥수수, 중국의 휴대전화의 가파른 성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페루 수입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對페루 수출도 '13년 하반기부터 둔화

〈페루의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순위 ¹⁾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미국	73.9	26.8	80.2	8.6	88.2	9.9	38.0	5.5
2	중국	63.7	24.5	78.2	22.7	83.9	7.3	34.9	6.3
3	브라질	24.4	11.6	25.8	6.0	23.4	-9.2	8.0	-13.8
4	에콰도르	18.7	31.6	20.5	9.1	19.3	-5.5	7.9	-10.3
5	멕시코	13.8	23.1	16.7	21.5	18.2	8.7	7.7	1.6
6	독일	11.2	25.6	15.2	35.6	16.2	6.1	7.1	-15.7
7	한국 ²⁾	14.9	42.7	16.5	10.6	15.9	-3.5	6.2	-9.3
8	콜롬비아	14.6	10.2	15.7	7.0	14.7	-6.3	5.4	-22.6
9	칠레	13.4	27.5	12.4	-6.9	13.3	6.7	4.9	-9.1
10	일본	13.1	-4.6	15.0	14.8	14.4	-4.3	4.7	-26.0
전체		380.1	26.2	425.5	11.9	436.7	2.6	176.9	-2.8

주1 : 순위는 '14.1~5월 수입액 및 점유율 기준

주2 : 페루 수입 통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Global Trade Atlas, Super 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페루 관세청)

□ 주요 품목별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자동차, 의약품 등이, 수입은 동광, 아연광 등의 자원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수출 품목) 주요 수출 품목인 승용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3.7%)하였으며 의약품도 큰 폭의 증가세('13년 69.0%→'14년 상반기 64.5%)를 지속하고 있음

- 반면 승용차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컬러 TV 등은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

○ (수입 품목) 주력 수입품인 동광이 47.5%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기타금속광물 및 은 수입은 30% 이상 감소

- 갑오징어, 새우, 장어 등의 기타수산물가공품이 91.3%, 포도, 바나나, 아보카도 등의 과실류가 63.5%의 증가세를 기록

〈우리나라의 對페루 주요 교역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품목명	'13년	'14.1~6월	비중	품목명	'13년	'14.1~6월	비중
승용차	504 (-1.5)	253 (3.7)	36.5	동광	418 (-6.6)	204 (47.5)	28.6
합성수지	180 (39.0)	82 (-16.1)	11.9	아연광	216 (-21.0)	136 (17.1)	19.1
화물자동차	117 (1.2)	38 (-26.2)	5.5	기타금속광물	310 (-40.0)	118 (-34.9)	16.5
컬러TV	94 (-32.4)	23 (-29.8)	3.3	은	162 (-15.6)	61 (-32.3)	8.6
항공기부품	0 -	19 (75,003.2)	2.8	LPG	52 -	57 -	8.0
건설중장비	44 (-32.5)	17 (-47.1)	2.4	기타수산물가공품	45 (-20.8)	35 (91.3)	4.9
자동차부품	36 (12.9)	15 (-7.5)	2.2	동괴및스크랩	37 (-39.6)	27 (27.0)	3.8
의약품	15 (69.0)	14 (64.5)	2.1	과실류	16 (86.4)	15 (63.5)	2.1
기타정밀화학원료	46 (-2.9)	14 (-44.7)	2.0	아연괴및스크랩	15 -	13 -	1.8
기타석유화학제품	32 (24.0)	14 (-22.0)	2.0	커피류	37 (-5.2)	10 (-26.9)	1.4
총계	1,440 (-2.2)	693 (-3.1)	100.0	총계	1,983 (21.0)	713 (-30.6)	100.0

주 : MTI 4단위,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II. 한 · 페루 FTA 3년의 성과

1.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페루 수입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3.6%(2013년)까지 늘리고 순위도 2010년 10위에서 7위로 상승
 - FTA 발효 전 대비 페루의 수입시장 규모는 연평균 13.2% 성장한 반면, 對한국 수입은 연평균 15% 증가
- 그러나 페루의 FTA 체결 확대로 인해 페루 수입시장 내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짐
 - 페루는 10대 수입국을 모두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7건의 FTA 발효
 - 주요 수입국 가운데 중국(2.2%p), 미국(0.9%p), 독일(0.7%p), 멕시코(0.5%p), 한국(0.1%p)만이 점유율 상승

〈페루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 변화〉

(단위 : 억 달러, %, %p)

순위	FTA발효 전(2010년)			FTA발효 후(2013년)			발효 전 후 비교		FTA 발효 시기
	국가	수입 금액	점유율 (A)	국가	수입 금액	점유율 (B)	수입 증가율	(B-A)	
	세계	301.3	100.0	세계	436.7	100.0	13.2	-	
1	미국	58.3	19.3	미국	88.2	20.2	14.8	+0.9	'09.2월
2	중국	51.2	17.0	중국	83.9	19.2	17.9	+2.2	'10.3월
3	브라질	21.8	7.2	브라질	23.4	5.4	2.4	-1.8	'05.12월(MERCOSUR)
4	에콰도르	14.2	4.7	에콰도르	19.3	4.4	10.7	-0.3	'98.5월(CAN CU)
5	일본	13.7	4.6	멕시코	18.2	4.2	17.6	+0.5	'12.2월
6	콜롬비아	13.3	4.4	독일	16.2	3.7	21.8	+0.7	'13.3월(EU), 11위('10년)
7	멕시코	11.2	3.7	한국	15.9	3.6	15.0	+0.1	'11.8월
8	아르헨티나	11.1	3.7	아르헨티나	15.7	3.6	12.2	-0.1	'05.12월(MERCOSUR)
9	칠레	10.5	3.5	콜롬비아	14.7	3.4	11.9	-1.0	'98.5월(CAN CU)
10	한국	10.4	3.5	일본	14.4	3.3	1.6	-1.3	'12.3월

주 : 증가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

자료 : Global Trade Atlas, Super 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페루 관세청)

- 특히 한·중·일의 페루와의 FTA 발효년도로부터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FTA를 가장 먼저 발효한 중국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일본은 FTA 발효 전보다 점유율이 하락
 - 한·중·일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FTA를 발효한 중국은 발효 전과 비교할 때 점유율이 4.8%p 큰 폭으로 상승
 - 우리나라는 페루 수입시장에서 3.51%(2014.1~5월)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FTA 발효 전(3.47%)에 비해 0.04%p 상승
 - 전통적으로 페루에서 강세를 보인 일본은 FTA 발효 후에 오히려 페루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1.3%p 하락해 FTA 효과가 미미함
- 한·페루 FTA를 일·페루 EPA보다 앞서 발효한 결과 FTA 선점효과에 힘입어 우리의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2년부터 일본 추월
 - 한·페루 FTA 발효 전에는 일본의 점유율이 한국에 1.1%p 앞섰으나 발효 이후 2012년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을 추월하여 2014년에는 일본과의 격차가 0.9%p까지 늘어남

〈한중일의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

국가(발효시기)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1~5월	FTA 전후 점유율 증감
 ('10.3월)	14.92	16.98	16.76	18.38	19.22	19.75	4.83%p
 ('11.8월)	-	3.47	3.63	3.87	3.64	3.51	0.04%p
 ('12.3월)	-	4.56	3.92	3.53	3.29	2.64	-1.28%p
한일간 점유율 차	-	-1.09	-0.29	0.34	0.35	0.87	-

자료 : Global Trade Atlas, Super 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페루 관세청)

- 품목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페루 FTA 이후 화학제품, 전기기기, 수송기기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화학제품의 경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점유율이 상승

o TV 및 통신기기의 선전으로 전기기기의 점유율이 1.5%p 증가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선전으로 우리나라의 증가세는 둔화

-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 등에 기인하여 페루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전기기기 점유율은 큰 폭(8.4%p)으로 상승

- 컬러 TV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3년 멕시코에 이어 2위 수출국이었으나 2014년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3위로 하락

〈제조업 품목별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억 달러, %)

품목군	對세계 수입액 (2013)	한국 점유율					경쟁국 점유율			
		2010 (A)	2011	2012	2013 (B)	(B-A)	국가	2010 (C)	2013 (D)	(D-C)
광물 및 금속	31.9	5.8	6.8	4.6	5.6	-0.2	중국	28.5	33.0	+4.5
							일본	4.0	4.7	+0.7
석유제품	57.4	2.9	0.0	0.0	0.1	-2.8	중국	0.1	0.0	-0.1
							일본	0.0	0.0	+0.0
화학제품	42.1	5.2	6.0	6.6	7.7	+2.5	중국	7.3	11.7	+4.4
							일본	0.7	0.7	+0.0
목재 및 제지	9.4	1.4	2.6	2.8	2.3	+0.9	중국	12.3	18.2	+5.9
							일본	0.4	0.2	-0.2
섬유	10.5	4.4	4.2	3.6	3.2	-1.2	중국	46.1	52.6	+6.5
							일본	0.5	0.3	-0.2
의류	5.9	0.1	0.1	0.1	0.1	+0.0	중국	77.1	74.2	-2.9
							일본	0.0	0.0	+0.0
가죽고무신발	11.8	4.8	4.0	4.1	3.5	-1.3	중국	30.0	32.6	+2.6
							일본	11.3	11.4	+0.1
기계	61.7	1.9	3.5	2.6	2.3	+0.4	중국	21.3	24.4	+3.1
							일본	4.9	4.8	-0.1
전기기기	37.7	2.4	5.7	5.9	3.9	+1.5	중국	37.0	45.4	+8.4
							일본	1.7	1.2	-0.5
수송기기	48.7	12.6	14.7	14.6	13.7	+1.1	중국	15.5	15.4	-0.1
							일본	23.5	14.2	-9.3
기타제조업품	14.5	1.4	1.8	1.6	1.7	+0.3	중국	36.3	38.3	+2.0
							일본	5.2	3.9	-1.3

주1 : 품목군은 WTO 기준

주2 : 페루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 점유율을 중국·일본과 비교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페루의 對한국 수입(한국의 對페루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으로 한정

자료 : Global Trade Atlas, Super 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페루 관세청)

- 수송기기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자동차 부품이 모두 3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페루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확대(1.1%p)
- 한편 수송기기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9.3%p 크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격전지인 승용차(HS8703229020) 시장에서 한국은 연평균 증가율 15.9%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14.2% 감소
- 우리나라 對페루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FTA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FTA 활용을 통해 일본과의 경쟁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

2. FTA 혜택별 수출 성과

□ 한·페루 FTA 효과에 힘입어 지난 3년간 FTA 수혜품목은 對페루 수출 증가에 기여하며 非수혜품목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보임

○ FTA 수혜품목의 對페루 수출은 非수혜품목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음

- FTA 수혜품목은 FTA 1년차('11.8월~'12.7월), 2년차('12.8월~'13.7월)에 각각 51.1%, 11.0%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非수혜품목의 경우 각각 6.5%, 1.1%로 소폭 증가에 그침

- FTA 3년차('13.8월~'14.5월)에 非수혜품목은 수출 비중이 높은 시멘트의 수출 부진 영향으로 13.5% 급감한데 반해 수혜품목 수출은 6.9% 감소에 그쳐 非수혜품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냄

〈한국의 FTA 혜택별 對페루 수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

	FTA 발효 전 (‘11.8~’12.7월)			FTA 1년차 (‘11.8~’12.7월)			FTA 2년차 (‘12.8~’13.7월)			FTA 3년차 10개월 (‘13.8~’14.5월)			
	금액	점유율	비중	금액	증가율	점유율	금액	증가율	점유율	금액	증가율	점유율	비중
수혜	4.8	7.0	37.3	7.2	51.1	8.9	8.0	11.0	8.8	6.4	-6.9	8.2	50.3
非수혜	8.1	4.0	62.7	8.6	6.5	3.7	8.7	1.1	3.5	6.3	-13.5	3.1	49.7
전체	12.9	3.6	100.0	15.8	23.1	3.9	16.7	5.7	3.8	12.7	-10.3	3.5	100.0

주 : 동기 대비 증가율, 점유율은 페루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Global Trade Atlas, Super 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페루 관세청)

○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면 FTA 수혜품목은 1.2%p 점유율을 확대한 반면 非수혜품목은 오히려 0.9%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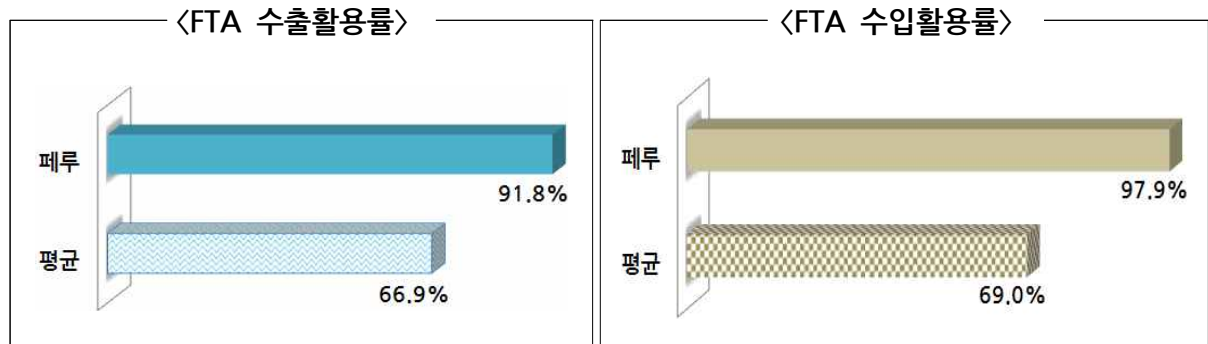
- FTA 수혜품목과 非수혜품목의 점유율 격차는 발효 전 3.0%p에서 최근 5.1%p로 확대되어 한·페루 FTA가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에 큰 힘이 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對페루 전체 수출에 있어 FTA 수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수출의 무게 중심이 非수혜품목에서 수혜품목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임
- 지난 3년간 FTA 수혜품목이 對페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에서 50.3%로 크게 증가

【참고 : FTA 혜택별 수출 성과 분석 방법】

- 분석기간 : 한·페루 FTA 발효('11.8월 발효) 이후 3년간 수출 성과 분석
- 분석대상 : 페루의 對한국 품목별 수입데이터(페루측 HS코드 10단위)
 - 품목별로 관세가 인하된 FTA '수혜품목'인지 '非수혜품목'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페루측 수입 데이터를 활용
 - HS코드 10단위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페루의 對한국 수입 실적(한국의 對페루 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 3,134개 대상
 - 수혜품목 : FTA 발효 이후 관세가 n%→0%로 철폐 또는 한·페루 FTA 양허안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1,359개)이 해당
 - 非수혜품목 : 非수혜품목은 원래 관세가 0%인 무관세 품목(1,720개)이나 양허안에 분류되지 않은 HS코드(55개) 등 기타품목이 해당
- 참고사항 : 한·페루 FTA 양허안은 HS 2007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 수출입시 HS 2012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일부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나, HS코드 변경 이력 및 Global Trade Atlas 자료 등을 종합하여 자료간 오차 최소화

- (FTA 활용률) 한·페루 FTA 수출 활용률은 91.8%로 현재 발효된 9개 협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FTA 수혜품목의 對페루 수출 건인 효과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FTA 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실제 한·페루 FTA 수출 활용률은 91.8%를 기록
 -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발효한 9개 협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2위인 EU의 80.8%, 전체 평균 66.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
- 수입 활용률도 97.9%를 기록해 한국이 수입하는 FTA 수혜품목 거의 모두에 FTA를 활용하는 수준



주1 : FTA 수출활용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FTA 혜택품목의 수출

FTA 수입활용률= 특혜관세 적용 신고 수입/FTA 혜택품목의 수입

주2 : 평균은 우리나라가 발효한 9개 협정에 대한 평균 활용률

자료 : 관세청(2014.2)

Ⅲ. 對페루 수출 유망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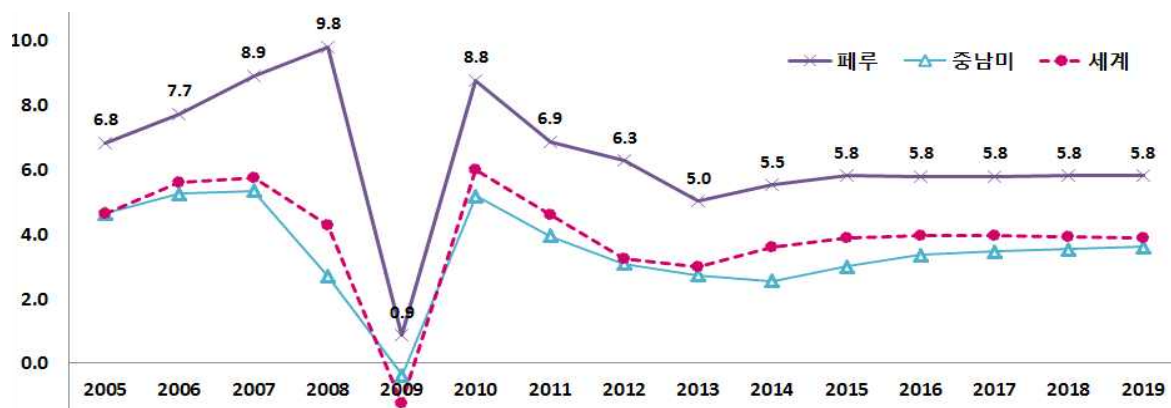
1. 개요

□ 최근 중남미 경기 침체 속에서도 페루 경제는 건조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중남미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 IMF에 의하면 2014년 페루 경제성장률은 5.5%로 전망되며 이는 중남미 평균 2.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후에도 5% 후반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페루 경제성장률 동향 및 전망〉

(단위 : %)



주 : '14~'18년은 전망치
자료 : IMF WEO(2014)

- 경제성장 뿐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 · 인구 · 민간 소비가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내수시장 확대 예상
 - 페루의 GDP는 2,065억 달러(명목, '13년)로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국에 비해 경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소득 수준 향상으로 구매력 증대 전망
 -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5~6%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수재, 내구재 뿐 아니라 여가 생활을 위한 소비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 수요 증가가 기대됨

〈페루 경제 약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GDP(십억 달러)	107.3	126.9	127.0	153.8	176.6	199.6	206.5
GDP 증가율(%)	8.9	9.8	0.9	8.8	6.9	6.3	5.0
1인당 GDP(달러)	3,800	4,427	4,362	5,205	5,883	6,550	6,674
인구(백만 명)	28.0	28.3	28.6	28.9	29.2	29.5	29.8
민간소비 증가율(%)	8.6	8.9	2.8	8.7	6.0	6.1	5.4

출처 : IMF, 블룸버그(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

□ 이에 한·페루 FTA 관세효과 및 최근 페루의 수입 수요 증가세를 반영하여 對페루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

- ①FTA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측면뿐만 아니라, ②최근 우리의 對페루 수출규모 및 페루의 수입규모를 고려한 수출가능성 및 ③페루의 품목별 對세계 수입증가세를 감안하여 성장성을 평가

〈수출 유망품목 선정 기준〉

- ① 경쟁력 : 한·페루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철폐·인하된 품목(MFN세율이 영세율인 품목 제외)
- ② 가능성
 - 2013년 기준 페루의 對세계 수입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
 - 2013년 기준 한국의 對페루 수출이 1,000달러 이상인 품목
- ③ 성장성 : 2011~2013년간 페루의 對세계 수입이 연평균 15% 이상 증가한 품목

2. 對페루 분야별 수출 유망 품목

① 수송기기

□ 페루의 자동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승용차에 대한 FTA 관세혜택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승용차의 수출 확대 예상

- 페루의 자동차 시장은 향후 3년간 연평균 9.9%(2015~2017년)의 성장이 기대되며, 특히 승용차 시장은 연평균 1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¹⁾
- FTA 특혜 관세(2014년 기준 5.4%, 2020년 완전 철폐) 적용을 통해 승용차 수출 증대 기대
- 하지만 페루의 주요 자동차 수입국인 일본, 미국 뿐 아니라 최근 페루와 FTA를 발효한 EU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로 자동차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

* 페루 승용차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 및 판매대수(2013년 기준, BMI) : 토요타(20.2%, 27,881대), 현대(14.8%, 20,446대), 기아(12.0%, 16,577대)

〈수송기기 수출 유망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코드 (페루측)	품목명	MFN 세율	FTA 세율	對세계 수입	연평균 성장률	對한국 수입	한국 점유율
8703210010	승용차(1,000cc 이하인 것)	6	5.4	125.8	61.0	48.0	38.13
8703229020	승용차(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6	5.4	473.4	22.4	125.8	26.57
8703239020	승용차(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6	1.8	892.5	20.3	328.4	36.80
8703249020	승용차(3,000cc 초과)	6	0.0	60.0	17.1	2.1	3.50
8703331000	디젤 자동차(4X4)(2,500cc 초과)	6	5.4	25.2	38.6	2.2	8.89

자료 : Global Trade Atlas, Super 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페루 관세청)

1) BMI

② 화학제품

□ 페루의 의약품, 개인관리용품의 수입 수요 증대에 따라 수출 확대가 기대

- 페루의 제약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8.1% 성장이 전망되는 바, 의약품의 성장 잠재력이 큼²⁾
 -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연간 가장 낮은 의약품 소비국가(1인당 53달러)로 인구의 50% 이상이 의약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항암제 또는 에이즈 치료용 의약품(HS3004201100)이 연평균 86.9% 증가율을 보이며 수입 수요가 급증
 - 미·페루 FTA('09.2월 발효) 관세 혜택으로 최대 의약품 수출국인 미국이 전체 시장의 9~10%를 차지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관세 혜택이 발생하는바 페루 수출 확대를 기대
- 페루의 개인관리용품시장은 연평균 9.4%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며 2017년 3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³⁾
 - 개인관리용품시장에서 향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데오드란트 및 손 청결제 등의 개인위생용품(HS3307909000)도 성장세가 기대되는 품목

〈화학제품 수출 유망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코드 (페루측)	품목명	MFN 세율	FTA 세율	對세계 수입	연평균 성장률	對한국 수입	한국 점유율
2805400000	수은	6	1.8	15.1	23.9	0.0	0.03
2815110000	고체형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	6	1.8	11.4	15.1	0.0	0.02
3002103900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	6	0.0	29.1	29.4	0.0	0.01
3004201100	의약품(항암제 또는 에이즈 백신 - 항생제 포함)	6	5.4	26.8	86.9	0.0	0.05
3004902400	의약품의 기타(암 또는 에이즈 치료용)	6	5.4	39.6	19.7	0.2	0.62
3208900000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 포함)	6	5.4	29.6	16.7	0.0	0.01
3307909000	제모, 기타 향수 및 화장품	6	5.4	16.7	65.0	0.1	0.82
3402200000	유기 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소매용)	6	5.4	18.5	32.1	0.0	0.01
3506100000	글루 또는 접착제(소매용)	6	5.4	19.5	21.4	0.7	3.48
3809910000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 또는 유사한 공업용의 것)	6	5.4	24.2	36.8	0.0	0.01

자료 : Global Trade Atlas, Super 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페루 관세청)

2) BMI

3) 리마상공회의소(KOTRA 글로벌윈도우 재인용)

③ 기타 소비재

□ 조명기구, 가구, 주방제품 등의 소비재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주택 건설의 성장세 및 도시 인구 이동을 고려할 때 이와 더불어 조명기구(HS9405109000)와 가구 등에 대한 수입 수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목재 가구(HS9403600000) · 의자(9401610000) 및 부분품(9403900000)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예상

○ 특히 식탁 및 주방제품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세철폐 혜택을 활용하여 점유율 확대 가능

- 냉장고, 스토브 등의 주방용 가전기기 뿐 아니라 플라스틱제 · 자기제 · 유리제 주방제품의 관세(6~11%)가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기대

〈기타 소비재 수출 유망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군	HS코드 (페루측)	품목명	MFN 세율	FTA 세율	對세계 수입	연평균 성장률	對한국 수입	한국 점유율
화학 제품	3923109000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 중상자, 케이스, 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	5.4	11.1	22.7	0.0	0.03
	3923210000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 중 에틸렌 중합체	6	5.4	14.8	25.3	0.0	0.22
	3923900000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 중 기타	6	5.4	12.9	19.2	0.0	0.28
	3924109000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	5.4	21.0	21.5	0.2	0.97
	3925900000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의 기타	6	5.4	13.3	20.9	0.0	0.03
	39269090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6	1.8	92.8	21.8	1.7	1.88
광물 금속	6911100000	자기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6	1.8	20.0	16.6	0.0	0.01
	7013490000	식탁용 및 주방용 유리제품	6	4.5	13.2	26.4	0.5	3.85
목재	940130000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6	1.8	19.6	24.4	0.6	2.85
	9401610000	프레임이 목재인 의자(의자에 커버 등을 댄 것)	6	5.4	24.2	29.4	0.0	0.01
	9403600000	기타의 목재가구	6	5.4	28.4	33.0	0.0	0.03
	9403900000	가구의 부분품	6	1.8	11.1	24.8	0.6	5.08
기계	7321111900	철강제의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화로, 가열판 및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 중 가스연료용의 것	6	5.4	38.4	27.2	0.0	0.01
	8414510000	테이블 · 바닥 · 벽 · 창문 · 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125W이하)	11	3.4	11.3	27.9	0.0	0.11
	8418103000	냉장·냉동고(용량이 269리터 이상 382리터 미만인 것)	11	10.2	54.7	15.2	2.2	3.93
기타 제조품	9405109000	기타의 천장용 또는 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	6	0.0	43.1	35.5	0.0	0.01
	9504301000	기타의 게임영구(코인 등 지급수단 사용)	6	0.0	115.6	40.1	0.7	0.62
	9506910000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기구	6	0.0	26.9	19.3	0.2	0.76
	9506999000	운동 또는 야외활동을 위한 제품·기구의 기타	6	1.8	12.1	29.7	0.0	0.35

자료 : Global Trade Atlas, Super 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페루 관세청)

④ 전기기기

□ 페루의 전기기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영상 모니터 및 TV 셋톱박스 등의 수출 확대 기대

○ 남미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페루의 전기기기 시장 중 소비 가전은 2014년 26.1억 달러 규모로 8.3% 성장 예상⁴⁾

- 그 중 AV(Audio-Visual)시장은 전체 전기기기 시장에서 37.7%의 점유율 차지

○ 영상 모니터(HS8528590000)의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페루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도 8.8%에 달함

* 삼성과 LG 제품이 디지털 및 스마트 TV시장 점유율 1, 2위(각각 35.7%, 31.2%)를 차지하며 전체 TV 판매량의 약 70% 차지(자료 : Dominio Consultores(KOTRA 글로벌원도우 재인용))

〈전기기기 수출 유망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코드 (페루측)	품목명	MFN 세율	FTA 세율	對세계 수입	연평균 성장률	對한국 수입	한국 점유율
8507200000	기타의 연산 축전지	6	5.4	13.4	18.1	0.1	0.86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6	5.4	10.5	22.2	0.0	0.03
8528590000	영상 모니터	6	0.0	29.1	32.2	2.5	8.76
8528710000	텔레비전 수상기(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지 아니한 것)	6	0.0	38.9	62.6	0.0	0.01
8544499090	절연 전기도체의 기타	6	0.0	10.8	15.3	0.0	0.03

자료 : Global Trade Atlas, Super 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페루 관세청)

4) BMI

〈그 외 기타 페루 수출 유망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군	HS코드	품목명	MFN 세율	FTA 세율	對세계 수입	연평균 성장률	對한국 수입	한국 점유율
커피 또는 차	1806900000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의 기타	6	5.4	16.1	16.8	0.0	0.01
광물 및 금속	7323931000	철강제의 방열기, 동력구동식의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 중 스테인리스강의 것	6	5.4	26.0	27.2	0.1	0.26
	7326200000	철강선제의 제품	6	3.8	16.9	24.3	3.1	18.47
	7604292000	알루미늄 합금 봉과 프로파일의 기타	0	1.8	27.9	18.4	0.0	0.01
종이 제품	4816200000	셀프복사지	6	1.8	13.5	21.7	0.0	0.08
섬유	4202220000	트렁크, 가방, 케이스(외부 표면이 가죽, 콤팩지션 레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중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6	5.4	30.8	28.6	0.0	0.01
	4202920000	트렁크, 가방, 케이스(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6	5.4	30.1	30.5	1.5	5.10
	5407610000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직물	11	10.2	24.7	69.7	1.7	6.74
	5407690000	합성필라멘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직물	11	10.2	18.4	18.0	0.3	1.87
	5703300000	기타 인조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펄트제에 한함)	6	1.8	12.5	34.3	0.0	0.11
	6301400000	합성섬유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1	10.2	27.0	25.5	0.2	0.61
	6302600000	면제의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월지 기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에 한함)	11	10.2	11.2	31.7	0.0	0.03
	6307909000	기타방직용 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방직용 섬유 제품, 낚마	11	3.4	12.3	29.3	0.0	0.10
	9404900000	침구 및 이와 유사한 제품(매트리스, 슬리핑백 제외)	6	1.8	32.6	26.5	0.1	0.45
	6109100031	면제의 티셔츠, 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	11	10.2	10.1	21.5	0.0	0.08
의류	6109909000	티셔츠, 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편물 또는 뜨개질의 것에 한한다)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1	10.2	23.1	33.9	0.0	0.01
	6115950000	스타킹, 양말 및 기타 양말류(면의 것)	11	10.2	14.6	47.3	0.0	0.17
	6201930000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오버코트, 카토크, 케이프, 아노락, 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1	10.2	18.3	19.5	0.0	0.01
	6202930000	인조섬유제의 여성용 오버코트, 카토크, 케이프, 아노락, 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1	10.2	13.2	18.2	0.0	0.03
	6204620000	여자 또는 소녀용의 바지, 점프수트, 반바지(면의 것)	11	10.2	31.4	35.2	0.0	0.03
	6205200000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면의 것)	11	10.2	28.0	26.8	0.0	0.12
	4016999000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6	1.8	11.6	18.3	0.1	0.99
가죽 고무 신발	6403919000	발목을 덮는 신발의 기타	11	10.2	18.1	39.3	0.1	0.76
	640419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또는 플라스틱, 갑피를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한다)	11	10.2	125.6	43.8	0.1	0.05
기계	8481100090	감압밸브	11	3.4	30.2	36.7	0.4	1.18
	8481300090	체크(논리턴)밸브	11	10.2	18.0	16.6	0.2	0.93
	8481804000	볼 밸브	6	0.0	39.1	18.2	0.2	0.52

자료 : Global Trade Atlas, Super 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페루 관세청)

IV. 결론 및 시사점

- 중남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對페루 교역은 한·페루 FTA 발효('11.8월)를 계기로 지난 3년간('11~'13년) 연평균 20.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對중남미 및 對세계 교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
 -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5.1%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아 對중남미 수출을 견인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자원 및 에너지 수입으로 연평균 24.0%를 기록
 - 한편, 금년 들어 페루 수입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우리나라 對페루 수출은 3.1% 소폭 감소하였고, 수입 단가 하락 등으로 수입은 30.6% 크게 줄어 對페루 교역은 19.4% 감소
- 한·페루 FTA 발효 이후 페루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점유율을 0.04%p 확대하며 발효 전 10위에서 현재 7위로 상승
 - 한편, 한·중·일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FTA를 발효한 중국('10.3월)은 발효 전과 비교할 때 점유율이 4.8%p 상승한 반면, 일본('12.3월)은 오히려 1.3%p 점유율 하락을 나타내며 뚜렷한 FTA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우리나라는 FTA 선점효과에 힘입어 발효 전 1.1%p 우리보다 앞섰던 일본을 추월하여 현재 0.9%p의 점유율 차이를 보이며 일본과의 격차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음
- 품목별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페루 FTA 이후 화학제품, 전기기기, 수송기기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對페루 수출 증가를 견인
- FTA 혜택별로 수출 성과를 비교하면, 지난 3년간 FTA 수혜품목은 對페루 수출 확대에 기여하며 非수혜품목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거둠
 - FTA 수혜품목은 FTA 1년차, 2년차에 각각 51.1%, 11.0%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했으며, 3년차에도 非수혜품목 수출이 13.5% 급감한 반면 수혜품목 수출은 6.9%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둠

- 한편 페루 수입시장에서 FTA 발효 후 FTA 수혜품목은 점유율을 1.2%p 확대한 반면 非수혜품목은 오히려 0.9%p 감소를 보여 FTA가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에 기여
- 또한 對페루 전체 수출에서 FTA 수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수출의 무게 중심이 非수혜품목에서 수혜품목으로 옮겨가는 양상
- 한·페루 FTA 수출 활용률은 91.8%로 현재 발효된 9개 협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FTA 수혜품목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확보함
- 향후 페루 경제가 5% 후반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세 혜택 및 최근 페루의 수입 수요 증가세를 반영하여 對페루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
-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FTA 관세혜택이 발생하는 승용차, 의약품 등의 수출 확대 기대
- 페루의 개인위생용품, 조명기구, 주방제품 등 소비재 관련 제품의 수요 확대가 중소기업 對페루 수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페루는 주요 수입국과 FTA를 모두 발효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만 FTA를 적극 활용하여 최근 침체된 페루 수입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 페루는 태평양동맹⁵⁾ 국가로 자유로운 교역환경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전망되는바 향후 수입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
- 한·페루 FTA 발효 이후에 페루가 MFN세율⁶⁾을 인하('12년)하여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에서 FTA 관세 인하가 크지 않았으나, 향후 FTA 관세가 추가 인하될 경우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우리보다 FTA 발효시기가 늦어 관세철폐가 늦은 일본, EU 등의 경쟁국에 앞서 시장 확보를 위해 관세인하를 심분 활용할 필요

5) 페루,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4개국은 포괄적인 경제통합을 목표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2012.6월 공식 출범, 태평양동맹은 저조한 남미 내 교역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 특히 아태지역과의 교역확대를 지향함

6) 예를 들어 9%의 MFN세율을 6%로, 17%는 11%로 인하함